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 鍾 容
印 刷 人 張 玉 煥
編輯局長 田 根 澤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작약 재배현황과 대책 …… 3면
◎현장탐방(공주) …… 4면
◎푸르름을 가꾸는 사람들 …… 4면
〈정선군 신동읍〉
◎손쉬운 민간요법 …… 6면

9일 공청회 개최 입장조율 관심

협회, 지난 10월 26일 대책회의 소집

국내산 규격화철회 강력 촉구키로

◇지난 10월 26일 본 협회는 9일 공청회 개최와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오는 11월 9일 국내산 생약재의 규격화문제와 관련한 공청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사부는 얼마전, 95년 4월1일 규격화 전면시행에 앞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9일 개최키로 확정 발표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사부, 농림수산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보건사회연구원 약품공업협동조합에서 각각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학계와 업계에서 추천될 것으로 보여지는 10명의 토론자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보사부의 규격품 대상 한약지정고시(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부처인 보사부와 농림수산부 생약재배농가 및 관련기관단체 간 찬반논란이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진정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한 입장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25일 규격화 고시 이후 현재까지 보사부는, 국민전체의 보건과 한약재 유통질서확립을 이유로 내년 4월 시행예정인 규격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약재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재배농가들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농산물인 생약재를 약사법을 기준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자체가 탁상행정의 소산이라는 지적이 높다.

생약협회는 10월26일 이에대한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국산한약재 17종에 대한 규격화고시철회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촉구키로 했다.

이종용 회장은 『「한약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실제 내용은 한약재 관리규정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약관리 규정」은 「한약재 관리규정」으로 바꿔야 하며, 생산자가 한의원이나 한약방등에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증명은 주민등록증사본으로 대치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20여명의 각 지방 생약재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서 무주군 심재석씨는 『다른 농산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있어서 가공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만큼 생약농사에 있어서도 가공산업에 대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격화라는 별도의 이중작업없이도 농민들 스스로 자체규격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UR대비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합천의 백문기씨는 수입개방화에 맞서 모든 농작물이 국가경쟁력 키우기에 총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생약재만을 약사법에 묶어 농민들의 재배의욕을 상실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농민이 생산 가공한 생약재의 품질이 원료의약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것과 한등의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규격품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내 생약농업의 발전과 생산자보호차원에서 국내산 17종에 대한 규격화고시철회와 농민이 직접 생산 포장한 것도 규격품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영농법인 우선지원

농림수산부, 95생약부문 계획안

95년도 농림수산부 잠업특작 생산·유통사업 지원계획(안)이 마련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종전 부문별(생약재배자금, 생약육묘포설치, 생약조제시설, 생약건조시설)로 지원되었던 자금이 ○생약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공동육묘포설치 ○생약집하장등을 하나의 「개소당 표준사업내용(Package)」으로 묶어 1개의 재배단지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대규모 단지에는 2개이상의 Package를 지원하거나 또는 1개의 Package를 2개이상 단지에 지원 가능토록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부 안에 따르면 개소당 표준사업비는 생약부분이 4억5천만원이나 중앙에서 적용한 사업비는 기존시설등을 감안하여 개소당 표준사업비의 70%를 반영, 3억1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으므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부사업별 표준단가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특히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사업수행능력이 있고 주산단지내 생산자조직, 특수조합, 영농법인등에 우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95년도 생약부문 전국 사업량은 30개소로서 지원비율은 보조(국고 10%, 지방비 10%) 20%, 융자 60%, 자부담 20%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생약은 기준면적 20ha에 ○공동육묘포설치는 1ha당 3천만원 ○생약재배시설은 20ha당 1억원 ○생약조제시설은 1백평 기준으로 2억원 ○생약집하장은 1백50평 기준으로 1억2천만원으로 구분된다.

부문	지원대상자
공동육묘포설치	1ha 이상 종묘를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
생약재배시설	생약재배 또는 재배희망농가(지원 대상품목)
생약조제시설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 생산자 단체
생약집하장	생산자 조직, 생산자 단체

시설내용으로 공동육묘포설치는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토지임차료, 고용노력비등이 포함되며 생약재배시설은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등 또한 생약조제시설은 전기, 수도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선별기, 탈피기, 세척기, 탈수이송콘베어, 절단기, 건조기, 상승콘베어, 계측기, 자동포장기, 운반차, 운반탱크등의 기기가 갖추어져야 하며 생약집하장은 철크린크리트 구조물이어야 한다.

우수한약재 전시

10월 27일 경동 한약상가내

「한방 무료진료·투약 및 우수 한약재 전시회」가 지난 10월27일 경동한약상가내에서 열렸다.

「서울 정도 6백년」을 계기로 새로이 제정된 서울 시민의 날 기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경동한약가협의회 주최로 한국생약협회를 비롯 동대문구약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대문구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한약상가번영회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우수한약재 전시, 무료진료 및 투약, 한약차 시음회등의 행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채롭게 마련됐다.

경동한약가협의회 박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 제기골은 우리 선조들의 혼과 위업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인술의 실천장으로서, 세계 제일의 한약유통 중심지로서 경동한약상가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본 협회는 국산한약재를 전시, 국내산의 효능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알림

'94년 약용작물 생산량 파악

'94년도 약용작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 기준 및 약용작물 정책기반 수립에 기여하고저 하오니 세밀히 파악 양식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94년 12월 20일까지

보협회 기획실

〈조사약용작물명〉

재배산 : 강활, 건강, 결명자, 식고본, 고삭, 구기자, 식길경, 일당귀, 토당귀, 대황, 독활, 두충, 만삼, 만형자, 맥문동, 목과, 편복단, 목적, 박하, 반하, 원방풍, 식방풍, 해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삭수유, 식산약, 소엽, 속단, 식시호, 오가피, 오미자, 옥죽, 영지, 우슬, 의이인, 백작약, 진피, 지실, 건지황, 지모, 토천궁, 일천궁, 토천마, 치자, 택사, 패모, 백하수오, 향부자, 현삼, 현호색, 황금, 황기 등 54개 품목

자연산 : 갈근, 고삼, 과루인, 낭탑근, 만형자, 모과, 대정황, 백출, 복령, 복분자, 세신, 연교, 오가피, 용담, 은행잎, 음양곽, 적작약, 진피, 차전자, 창출, 천마 등 21개 품목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